

# 대북정책 추진현황

2004. 6. 25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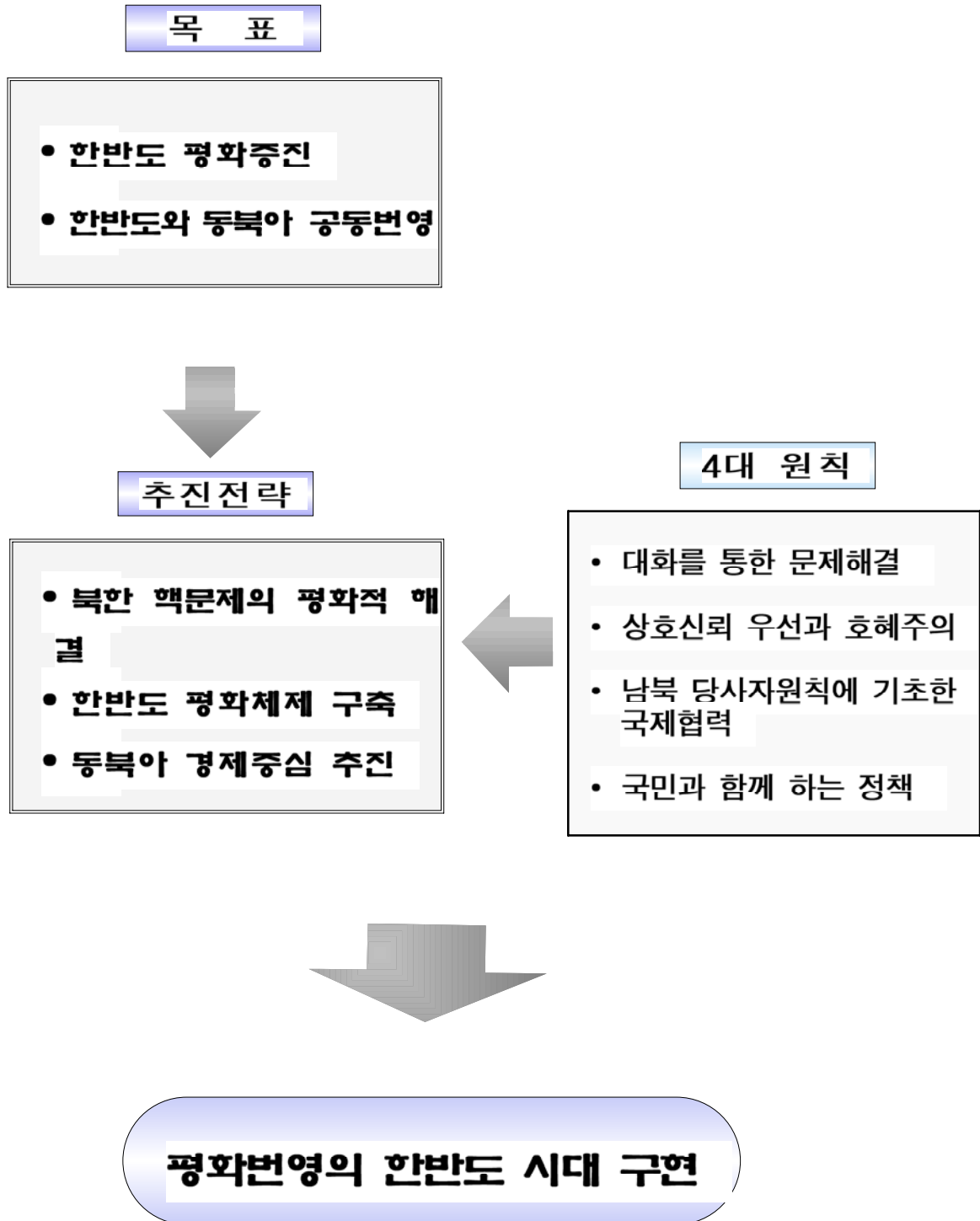
통 일 부

# 목 차

I. 평화번영정책 추진 .....	1
II.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.....	2
III. 남북관계의 발전 .....	3
1. 남북대화의 정례화 .....	3
2.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.....	4
3. 인도적 문제의 해결 .....	8
4.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한 통일교육 실시 .....	10
IV.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.....	11

# I. 평화번영정책 추진

## ※ 평화번영정책의 체계도



## II.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

### 1.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 촉구

- 장관급 회담(8-14차) 등 각종·각급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다자회담 호응 촉구
  - △ 제13차 장관급회담(2.3-6): “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”
  - △ 제14차 장관급회담(5.4-7): “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”
- 북한의 6자회담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 채널의 유용성이 확인
  - △ 리자오싱, 다이빙궈 등 중국 외교부 인사의 통일부 방문
  - △ Kelly 방한(2.2)시 “장관급회담이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뒷받침”
  - △ 장관급회담 종료 후 미·일·중 대사 대상으로 회담결과 브리핑 실시

### 2. 6자회담 동향

- 제2차 실무그룹회의(W/G, 6.21-22) 및 제3차 6자회담 회담(6.23-26)이 북경에서 개최
  -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 재확인,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
  -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, 이를 통해 동결의 범위, 기간 및 검증방법, 상응 조치에 관한 정의를 하고, 이를 4차회담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
  - 동결 범위, 동결 방법, 검증주체, 상응조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, 참가국간 실질적인 토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.
- 제3차 실무그룹회의 및 제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임.

### Ⅲ. 남북관계의 발전

#### 1. 남북대화의 정례화

##### □ 추진현황

- 남북협력사업들의 원활한 추진, 군사분야의 협력유도,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조성 등을 목표로 남북대화 추진

☞ 올해 총 21회 회담 개최(6.25기준)

◆ 정치·군사분야 : 6회, 경제분야 : 12회, 적십자·체육 분야 : 3회

- '03년 총 38회 개최(정치·군사 : 13회/ 경제 : 17회, 적십자·체육 : 8회)

- 6.15 공동선언 이후 총 115회 개최

##### □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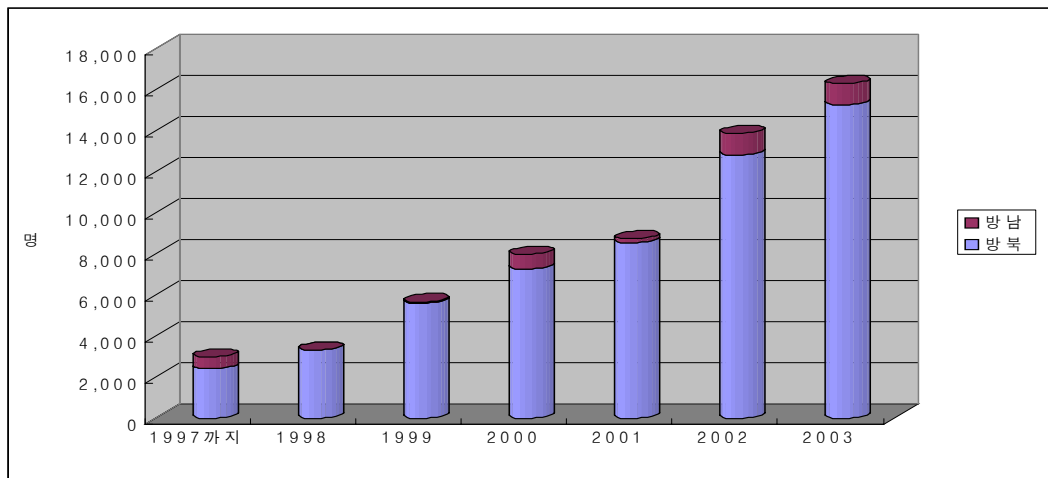
- 장관급회담은 명실상부한 당국간 회담의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채널로서 지속 활용
- 장성급 군사회담의 정례화 및 국방장관회담 재개 추진
  - 군사적 긴장완화·신뢰구축 모색, 「경제와 안보」의 균형발전 추구
- 경제분야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, 3대 경협의 안정적 추진 및 남북간 제도적 문제 협의·타결
-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「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」를 가동, 사회문화교류의 안정적 추진환경 조성
-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도 인도적 문제 해결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

## 2.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

### ① 인적·물적 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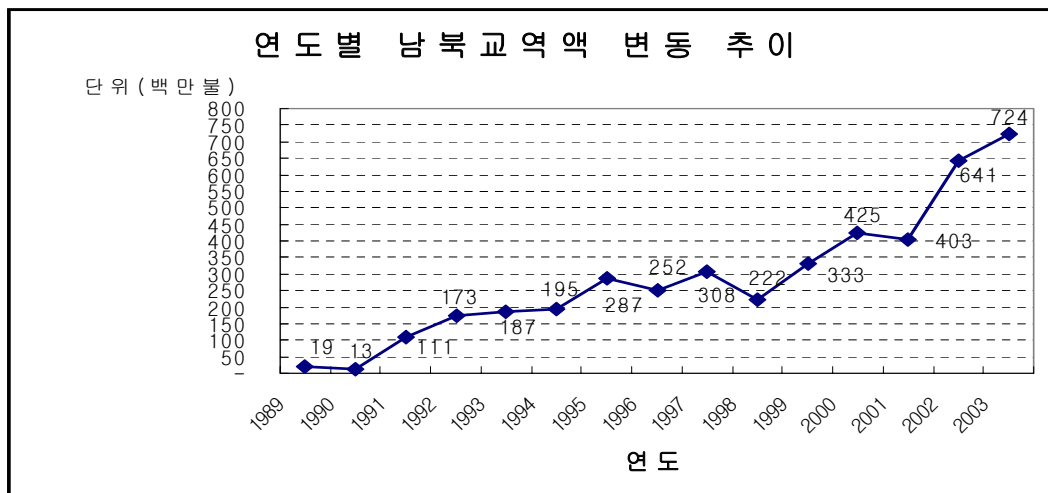
o 남북간 '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, 교류와 협력'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간 왕래 인원이 해마다 증가

- 왕래인원 : 7,986명('00)→ 8,742명('01)→ 13,877명('02)→ 16,303명('03)



o '89년 1,872만불로 시작한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교역 규모의 1/4 규모로 성장(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국)

- 교역액 : 2.2억불('98)→ 4.3억불('00)→ 6.4억불('02)→ 7.2억불('03)



## ② 개성공단 개발

### □ 추진내용

- 개성시 일대 총 2,000만평(공단 800만평, 배후도시 1,200만평) 개발, 이중 1단계 100만평 공단 조성 협력사업 승인(4.23)
- 금년 4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이래, 6.25 현재 95%이상 진척
  - 6월말 시범단지(28,000평)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우리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생산에 착수
  - \* 6.5 시범단지에 입주할 전실한 15개 업체를 선정, 6.14 계약체결
- 1단계 100만평 기반시설 건설도 지속

#### ☞ 개성공단 건설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

- △ 통행합의서 체결('04.1.29) 등 제도적 장치마련
- △ 분양가 인하, 안정적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
  - 내부기반시설은 무상지원, 외부기반시설은 장기저리 대출
- △ 통일부 산하에 범정부차원의 「지원 기획단」을 설치, One-Stop 서비스
- △ 손실보조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실행, 중소기업 지원 강화
- △ 북측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노동훈련센터 설치·운영 추진

### □ 사업의 의의

- 우리의 자본·기술과 북한의 토지·인력이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 협력사업
  - 어려운 국내 경제로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활로 제공
  - \* 수도권에 근접(서울 1시간, 평양 2시간)/ 임금 월 57.5불로 연5%미만 임금 인상, 자율적 노무관리/ 연 10-14%의 낮은 세율
  -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「시장경제의 학습장」으로 기능
- 군사적 대치구역인 「개성-문산 축선」을 경협 현장으로 개방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

### ③ 남북 철도·도로 연결

#### □ 추진내용

- '03. 6 퀘도 연결식 이후 남북이 착실히 공사 진행

<'04. 5말 현재>

구 분		우 리 측	북 측
경의선	철 도	○ 공사 완료('02.12.31)	○ 퀘도부설 중(12.5km/15.3km)
	도 로	○ 공사 완료('03.10.31)	○ 포장공사 중(69%)
동해선	철 도	○ 노반공사 중(18.7%)	○ 퀘도부설 중(15.8km/18.5km)
	도 로	○ 노반공사 중(69%)	○ 포장공사 중(74%)

-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 개통 추진, 도로 개통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마련

- 철도는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 시험운행 실시, 내년 말 개통 추진

- 자재·장비 적기 제공을 통해 북측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

- 열차·차량운행 합의서 발효 추진 및 열차·차량운행 사무소 개소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

#### □ 사업의 의의

- 남북간 철도·도로 연결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

- 남북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, 수송시간 단축 등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

- 나아가 대륙횡단철도(TSR, TCR 등)와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

\*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, 인천공항의 허브(hub)기능을 강화

\*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, 설악산 연계관광을 통해 동해권 발전에 기여



## ④ 금강산 관광사업

### □ 추진내용

-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, '03.9 이후 육로 관광이 정례화 되면서, 사업 추진의 지속 기반을 마련
  - '03.9-'04.5월간 월평균 관광객은 12,657명, 성수기는 월 15,000명을 상회
  - \* 해로관광은 비용절감을 위해 금년 1월 일시 중단, 현재 선박교체 협의 중
  - 6.15 당일 시범관광, 6.19부터 1박 2일 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
  - \*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, 출입시간 연장, 출입절차 간소화 등 당일 및 1박2일 관광 실시 여건 조성
  - 금강산여관 보수·개장(435명 숙박 가능) 등 사업자 자구노력 지속 추진
- 관광특구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진 상태
  - 북측은 '02.11 「금강산관광지구법」을 제정하고, '03.10 관광특구 경계를 확정(600만평)한데 이어, 현재까지 8개 하위규정 발표
  - 특구개발 계획은 WTO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계획 수립 중
  - \* '04. 5.29-6.1 북한 아래 법규 담당자는 우리측 사업자와 향후 특구운영에 대비, 중국 개방구(상해, 소주, 심천)를 방문, 시장경제 운영실태 시찰

### □ 사업의 의의

- 민간 추진의 관광사업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평화적 성격의 사업
  - 통일의 산교육장으로서 남북간의 문화적 접합면의 역할을 담당, 남북 「사회문화공동체」 형성의 실험실로 기능

### 3.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

#### ①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

##### □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·제도화 추진

- 우리측은 이산가족 고령화 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,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·정례화에 주력

\* '04. 5월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01,031명

- 생사·주소확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, 서신교환→ 상봉→ 재결합 구도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
- 정상회담이후 9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 9,020명, 생사주소 확인 21,414명, 서신교환 679명
  - 현재 10차 이산가족 상봉사업 준비 중(7.11-16, 금강산)
- 납북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경주
  - 당국 및 적십자회담 등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 촉구

##### 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추진

- 금강산 면회소를 우리측이 「전담 건설·전담 운영」하기로 합의 ('03.11, 제5차 적십자회담)
  - \* 1,000명 수용 가능한 콘도 형식의 면회 숙박시설로 조성(연건평 6,000평 규모)
  - 측량·지질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하고,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추진

## ② 대북지원 현황

- 정부차원에서는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·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
  - 비료 지원 : 올해 6.23자로 20만톤 지원 완료(698억원 이내)
    - \* '01년 20만톤, '02년 30만톤, '03년 30만톤 지원
  - 쌀 지원 : 차관형식으로 제공(9차 경추위시 40만톤 지원 합의)
    - \* '00년 30만톤(옥수수 20만톤 별도 지원), '02년 40만톤, '03년 40만톤
  -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(올해 70만불),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지원(올해 100만불)에도 참여
-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지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토록 권장
  - 보건의료·농업개발·취약계층 등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(98.7억원)
    - \*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지원 추진

### ☞ 용천 재해 지원

- 북한은 총 피해규모를 9,300만불로 제시(5.6 국제기구와 회의시)
- 정부(한적)와 민간단체들은 6.21현재 총 4,521만불 상당을 지원
  - 정부(2,671만불) : 긴급구호품, 복구용 자재·장비, WHO를 통한 지원
  - 민간(1,850만불) : 긴급구호품 위주로 지원
- \* 국제사회는 1,876만불 상당을 지원

#### 4.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한 통일교육 실시

##### □ 배 경

-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면서 균형적인 대북관·건전한 통일관에 입각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추진

##### □ 추진 방향

###### ○ 청소년 통일교육 지원

- 초·중등 교과서 통일단원 영상교재 보급 등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
- 초·중등 교사 대상 원격 통일교육 실시 및 대상 규모 확대
- KBS 「도전골든벨」 등 청소년 관심 프로그램에 통일관련 문제 지원
- 「사이버통일교육센터」를 통해 온라인 통일교실, 통일게임·만화, 가상 북한 체험 등 청소년 대상 특화 콘텐츠 개발
- 초·중등학생 대상, 「직원 1일 통일교사」 활동 지속추진

###### ○ 민간 통일교육의 활성화 도모

- 「지역통일교육센터」(부산·광주) 운영을 통해, 지역 주민·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
-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, 통일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간의 협의·조정 및 협력 증진

- 통일교육 기준·내용, 공공시설 이용,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기반개선법 제정(국회제출)

## IV.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

### 1.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
-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
  -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,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(facilitator) 역할 수행
- 북핵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 병행

### 2. 「경제」와 「안보」의 균형적 발전

- 남북관계의 분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기반을 조성
  - 개성공단 건설 등 3대 경협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, 경제교류의 제도화를 통해 상호 의존성 심화
  - 장성급 군사회담 정례화,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둘씩 협의

### 3.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

- 국회보고, 특화·전문화된 「열린 통일포럼」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투명성 강화,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



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 조성

끝